

韓國養鹿守護決議大會

輸入開放으로 危機에 處한 國內 養鹿業界는 12月3日 尹奉吉 義士 記念事業會 講堂에서 開催한 全國 養鹿人 代表者 決議 大會는 養鹿 守護를 위한 政策 建議 事項과 決議文을 採擇하여 政府, 國會, 政黨에 提出하기로 決議한 다음 이와 關聯한 主題 發表가 있었다.

安鼎植 會長은 大會辭에서 政府 當局의 養鹿政策 不在와 對策없는 輸入開放으로 國內 養鹿基盤이 崩壞危機에 直面했다고 말하고 外産에 依存하는 鹿茸의 國産自給을 위해서는 關聯法令의 補完等 制度的인 改善과 輸入 사슴과 輸入 鹿茸에 調整關稅 100%를 適用하여 輸入을 抑制하고 國內 養鹿을 保護 해줄 것을 促求했다. 또한 危機 克服은 養鹿人의 團結 없이는 어렵다고 強調하고 우리 鹿茸으로 內需 自給을 하도록 努力하자고 呼訴했다.

國會農林水産委員會 金泳鎮 議員과 酪農牛乳協會 姜誠元 會長의 激勵辭에 이어 다음의 建議書와 決議文을 採擇했다.



決 議 文

우리 養鹿은 鹿茸 自給과 國民保健 向上에 寄與하고자 40年동안 스스로의 努力으로 15萬頭의 사슴과 7萬余키로의 生鹿을 生産하는 世界 屈指의 養鹿으로 成長했으나, 最近 農産物 輸入이 開放되어 外國의 低質 사슴의 廉價 輸入으로 金石같이 아껴온 우리 사슴은 價格이 暴落되고 販路가 막혀 蒸蕩材로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品質이 優秀한 國產鹿茸은 藥材 利用을 法으로 막고 있어 世界 各國의 低質 鹿茸 輸入이 倍로 늘어날 뿐아니라 사슴고기, 사슴피까지 開放하여 우리 養鹿은 실망을 잃어가고, 8千余 養鹿人은 破産地境에 處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養鹿을 破滅케하는 外國 低質 사슴과 低質 鹿茸의 無限 輸入을 抑制하여 우리 養鹿을 守護하고 養鹿 發展을 沮害하는 關聯 法令 改正을 위해 다음 事項의 貫徹를 決議한다.



1. 養鹿農家 保護와 養鹿 發展을 위해 서 政府(農林水産部)는 사슴과 國產 鹿茸을 畜産法上的 家畜과 畜産物로 明示하고 飼育 技術과 財政을 支援하라.

1. 國際 競爭力 培養은 生産經費 節減과 鹿茸 品質 向上에 있기 때문에 政府(山林廳)는 無公害 粗飼料(樹葉類) 自力 供給이 容易한 山林內 사슴 牧場設置를 關聯法律로 明示하라.

1. 外貨를 節減하고 良質의 國產 鹿茸自給을 위해서 政府(保健社會部)는 國產 鹿茸의 乾燥 販賣를 許容하고 鹿茸의 基準 設定과 流通構造를 改善하라.

1. 破滅危機에 直面한 國內 養鹿保護을 위해서 政府(財務部)는 輸入 사슴과 輸入 鹿茸에 對한 關稅를 100% 引上하라.

1. 養鹿과 養鹿産物에 對한 公正, 均衡 課稅를 위해서 政府(財務部)는 農家 副業規模 所得稅 非課稅와 國產 鹿茸에 特別 消費稅를 免稅하라.

以上の 決議事項은 韓國養鹿의 死活과 直結되므로 우리 養鹿人은 鐵桶같이 團結하여 爭取하기로 굳게 決議하며 署名한다.

1992年 12月 3日

韓國養鹿守護全國養鹿人代表者一同

建 議 書

8·15光復直後 北韓의 開城에서 搬入한 梅花鹿 數拾頭로 始作한 우리나라에서의 사슴 飼育은 1970年代까지 鹿茸을 선호하는 富裕層과 動物 愛好家들의 觀賞과 自家補藥用으로서 魅力的인 動物이었으나 1972년부터 營利에 민감한 人士들이 大形種인 엘크사슴과 中形種인 레드사슴을 輸入하므로서 사슴 사육붐이 일어나서 사슴 價格이 上勢를 거듭하자 政府는 이때부터 不要不急한 사슴 수입을 막았으나 一攫千金을 노리는 輸入業者들은 사슴 輸入을 斷念치 않고 養鹿人을 不安하게 했습니다.

1980年 國內사슴數는 拾萬頭로 增殖되자 富裕層 사육이 쇠퇴하고 農民 사육으로 轉換되면서 輸入 鹿茸의 國產 代替를 目標로 良質 鹿茸 生産에 主力해 왔으나 國產 鹿茸은 藥用으로 使用하는 길이 막혀 切角 즉시 實需要者에 生鹿茸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消費層이 없는 農村 사육은 또다시 公害가 심하고 生産費가 높은 都市 近郊 사육으로 되돌아 갔고 農家 所得 増大를 바라던 農民들에 失望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리의 屠畜도 않고 繁殖에 힘써 해마다 26%로의 增殖率로 1991年末 現在 꽃사슴 約 12萬頭, 赤鹿 約 6千頭, 엘크(大鹿) 約 9千頭等 總 13萬 8千頭로 增殖되었으며 앞으로 9年後인 紀元 2000년에는 約 80萬頭的 사슴에서 約 15萬키로의 良質의 國產 鹿茸生産을 바라보며 養鹿業 發展을 위한 關聯 政策支援을 呼訴해 왔으나 政府 關係 當局은 問題 解決을 위한 誠意도 努力도 없이 “現行法은 이렇다” 또는 “法上 안된다”는 등의 簡單한 答辯으로 問題解決을 回避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養鹿 40年 동안 쌓이고 쌓인 懸案으로는 사슴과 鹿茸을 畜産法上의 家畜과 畜産物로 明示, 國產 鹿茸의 藥茸化 및 生産者의 乾燥販賣 許容, 不公正 課稅의 是正, 山林內 사슴 飼育 許容을 法律로 明示 그리고 開放으로 인한 國內 養鹿保護 對策等 生産과 流通, 利用 모두가 國內 養鹿의 存廢를 가늠하는 懸案으로서 政府가 解決해야 할 宿題가 山積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問題로 10萬키로의 外產 鹿茸이 輸入되어 市場을 獨占하는데도 20%未達인 國產 鹿茸은 藥用아닌 食品으로 生茸을 求乞 販賣하고 있으며 또한 버려지는 草資源을 利用치 못하고 公害심한 都市近郊 사육으로 乾草(갈잎)까지 輸入하는 實情입니다.

우리나라에 鹿茸을 輸出하는 中國, 러시아, 뉴질랜드는 養鹿을 政策事業으로 育成하는데 이를 輸入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養鹿을 抑制하거나 傍觀하고 심지어 國產 生茸藥用化를 막아놓고 外產 鹿茸의 無制限 輸入을 許容하고 있으니 우리 政府는 누구 위한 政府입니까? 그뿐 아니라, 政府는 지난해 이러한 國內 養鹿 現實을 外面하고 아무런 對策도 準備期間도 주지않고 사슴 輸入을 開放하여 사슴 價格이 切半으로 暴落했는데 生茸 切角期에 國內 사슴이 細菌感染이라는 誤報(8月22日 國會 保社委糾明)까지 해서 零細 養鹿人을 破産之境에 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國內 8千余 養鹿人의 生存權 保障과 15萬頭的 國內 사슴 保護 및 鹿茸의 國產 自給 實現을 위해 다음 事項을 建議합니다.

1992. 12. 3

韓國養鹿保護全局養鹿人代表者大會
會 長 安 鼎 植 外 代表者一同

養鹿을 畜政圈 畜産으로 政策 支援

우리나라 사슴은 1950年代부터 民間 飼育을 시작하여 現在 15萬頭의 사슴에서 7萬余키로의 生茸을 生産하는 主要 家畜群으로 成長했음에 따라 向後 10年以內 100萬頭로 繁殖되면 15萬키로의 乾鹿茸 生産으로 內需自給을 實現할 것이며 4000余톤의 鹿肉과 拾萬枚의 鹿皮, 鹿毛, 鹿腎等의 生産이 可能합니다. 國內 養鹿의 實相이 이와 같은데 사슴은 畜産法上의 家畜 아닌 施行規則上의 其他家畜으로 돼있고

슴이 生産한 鹿茸은 事實上 畜産物인데 藥事法上의 藥으로 規定되어 養鹿은 政策圈外의 特殊畜種으로 政策 支援을 못받고 있습니다.

政府는 最近 畜産法 改正案에 “닭을 추가하고 양은 면양, 산양”으로 區分하여 畜法上家畜으로 한 바 있으나 사슴은 改正案에 漏落시켰습니다. 따라서 사슴을 “畜産法上 家畜으로” 사슴뿔(鹿茸)을 “畜産法上畜産物로” 해 줄것을 建議합니다.

1. 畜産法 改正事項

〈表1〉

關 係 法 令

施 行 法	建 議 案	改 正 事 項
法 第2條(定義) 1. 家畜이라 함은 飼養하는 소, 말, 양, 돼지, 其他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짐승, 家禽을 말한다.	1. 家畜이라 함은 飼養하는 소, 말, 양, “사슴” 돼지 其他 등.....	사슴을 畜産法에 明示한 定規 家畜으로 하여 畜政圈 家畜으로 包含.
3. 畜産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肉, 乳, 卵, 꿀과 이들의 加工品, 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 原毛 其他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家畜의 生産物을 말한다.	3. 畜産物이라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肉, 乳, 卵, 꿀, “鹿茸”과.....	飼育하는 사슴에서 生産한 鹿茸을 畜産法上의 畜産物로 明示

2. 사슴飼育場 設置 法律로 明示

사슴은 野生動物이기 때문에 林間 사육을 해야하나 生産物(生鹿茸, 鹿血) 販賣가 容易한 都市 近郊에서 사육하는 關係로 公害 및 粗飼料難으로 品質低下와 높은 生産費 및 人力難을 겪고 있으며 國內 樹葉類가 豊富하나 外國에서 “갈잎”을 輸入하는 實情이며 더욱이 輸入 사슴과 輸入 鹿茸에 밀려 國內 養鹿은 실망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슴을 專業規模로 擴大하고 自家 勞動力

으로 粗飼料 生産을 하기 위해서는 公害없고 粗飼料 利用이 容易한 山間地帶로 옮겨 品質向上과 生産費 節減으로 國際 競爭力을 培養해야 하기 때문에 養鹿에 基礎인 飼育場 設置를 法律로 明示돼야 하는데 이와 關聯한 明文 規定이 없어 不法아닌 無法 상태에서 不安을 甞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表2의 養鹿의 形態別, 規模別로 飼育場 設置를 할 수 있도록 山林法 및 土地 關聯法에 明文化해 주기 바랍니다.

<표 2>

飼育 形態別 規模別 所要 面積

區 分	品種別 飼育 規模			飼 育 區 分		對 象 地 域
	꽃사슴	레드디어	엘 크	集約飼育	粗放飼育	
副業型	50頭 以下	20頭 以下	10頭 以下	1,000坪 以下	10町 以下	農地 및 山地
專業型	51~40頭	21~40頭	11~20頭	2,000坪 以下	20町 以下	自家勞動力規模

註: 專業規模 以上은 比率에 따른 面積加算

◆ 保健社會部 ◆

國產 鹿茸의 加工 流通

사슴은 野生動物이었으나 사슴의 뿔(鹿茸)을 얻기 위해 約 260年前 中國 吉林에서 養鹿이 始作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東洋圈에 鹿茸을 供給해왔으며 우리나라는 8·15光復以後 北韓產 梅花鹿을 搬入하여 鹿茸生産 위주로 養鹿을 하고 美洲地域과 大洋洲地域은 1970年代까지 鹿肉 爲主의 養鹿이었으나 1980年代부터 우리나라에서 鹿茸을 無制限 輸入함에 따라 肉·茸 並産 養鹿으로 急成長했으며 東北亞(시베리아) 地域의 放生 馴鹿은 荷役 및 食肉用으로 利用했으나 最近 數萬키로의 鹿茸을 우리나라에 輸出하게 되자 數百萬의 野生 馴鹿 管理에 熱을 올리고 있고 西北歐 地域에서도 韓國의 鹿茸 市場에 關心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世界 모든 養鹿國은 生産量의 80%의 鹿茸을 우리나라로 輸出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萬키로 以上の 鹿茸과 100萬키로 以上の 鹿角을 輸入하는 實情이나 國內 養鹿의 主産物인 사슴뿔(鹿茸)은 鹿茸으로 利用하는 것을 法律로 抑制하고 있어 內需 國産 代替 길이 막혀있을 뿐 아니라, 鹿茸의 無制限 輸入 許容과 鹿肉 및 사슴 輸入開放 등으로 國內 養鹿은 存亡의 危機에 處했습니다.

모든 養鹿 國家는 自國 養鹿을 政策的으로 保護 育成하는데 國內 養鹿은 사슴 飼育場 設置에서 生産物 販賣에 이르기까지 保護 育成은 고사하고 不公正, 不均衡 法令이 養鹿 發展을 막고 있어 다음 事項을 建議합니다.

1. 自家生産 鹿茸 의 乾燥 및 販賣 許容

(1) 藥事法

現 行	建 議(改正)案	改 正 理 由
<p>第2條(定義)</p> <p>(4) 이 法에서 醫藥品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物品을 말한다.</p> <p>1. 大韓 藥典에 收載된 것으로 衛生用品 아닌것.</p> <p>(5) 이 法에서 漢藥이라 함은 動物, 植物 또는 鑛物에서 採取된 것으로서 主로 原形대로 乾燥斷切 또는 精製된 生藥을 말한다.</p>	<p>第2條(定義)</p> <p>(5)</p> <p>.....</p> <p>.....</p> <p>.....</p> <p>.....</p> <p>但, 乾燥, 斷切 또는 精製 안 된것은 生藥으로 보지 않는다.</p>	<p>漢藥 定義의 法文을 鹿茸과 關聯 지어 볼 때 “사슴(動物)에서 採取된 鬚을 主로 原形대로 乾燥 斷切 및 精製된 鹿茸을 말한다.”라고 情誼한 것으로서 法制正當時는 中國產 乾鹿茸만 輸入되었던 時期였기 때문에 乾燥, 斷切 및 精製된 生藥이라고 定義했던 것으로 理解되나 最近 國產 自給을 目標로 量産되는 國產 生鹿茸의 乾燥, 販賣가 抑制되고 있기 때문 임.</p>
<p>第26條(製造業 許可)</p> <p>(1) 醫藥品, 醫藥部外品, 化粧品, 醫療用具 또는 衛生用品(以下 醫藥品 등이라 稱한다)의 製造業 또는 小分類을 하고 저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業種別 製造所別로 保健社會部長官의 醫藥品等에 대한 製造業 許可와 品目 許可를 받아 야 한다.</p>	<p>第26條(製造業)</p> <p>(1)</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단, 自家 生産 生鹿茸의 乾燥斷切精製는 製藥으로 보지 않는다.</p>	<p>(1) 本 條項은 醫藥品 製造를 業으로 하는 것을 規定한 것이 나 國產鹿茸의 경우 生茸의 收買乾燥는 製造業에 該當하겠으나 사슴 飼育이 生業인 養鹿人이 生産한 畜産物인 生茸의 保管 販賣를 위한 乾燥 및 精製는 鹿茸의 生産 課程이지 製造가 아니며 더욱이 製造를 專業으로 하는 業者가 아니기 때문에 自家 生産 乾燥는 法으로 保障되야 外産과의 衡平을 期할 수 있음.</p>

2. 鹿茸의 成分 效能 研究 및 基準 設定

사슴은 小型(꽃사슴, 梅花鹿), 中型(레드디어, 馬鹿), 大型(엘크, 수룩); 기타(馴鹿)로 分類하나 鹿茸은 사슴 品種과 產地에 따른 價格으로 流通하는데 무엇보다 重要的 것은 鹿茸의 品質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世界 鹿茸 總量의 80%를 消費하면서 各種 鹿茸에 대한 成分과 效能을 糾明도 않고 또한 基準도 없이 官能 檢査로 輸入하고 있으며 이렇게 輸入한 鹿茸을 漢醫院에서 補藥劑로 販賣합니다.

특히 國產 鹿茸은 漢醫藥業者가 不良 鹿茸이라는 理由로 收買을 忌避하므로 科學的 成分 分析이 時急한 實情이며, 아울러 鹿茸 成分 基準이 設定돼야 不良品 區分도 할 수 있습니다.

最近 鹿茸을 안먹는 外國(뉴질랜드, 日本)에서 鹿茸 研究를 하고 있으며 國內에서는 1989年 國產 꽃사슴의 生分, 效能에 대한 研究 發表가 있었고, 1991年 輸入 鹿茸의 成分 研究 結果도 發表된 바 있으나 이는 利害當事者들의 斷片的인 研究이므로 政府에서 早速히 各品種別 鹿茸에 대한 成分과 效能을 體系의으로 研究하여 鹿茸에 關한 基準을 設定하여 國內外產 鹿茸에 適用하기 바랍니다.

3. 鹿茸 需給 調整 및 流通 構造改善

(1) 鹿茸 需給 調整

最近 外產 鹿茸 輸入量이 急增하는 것은 鹿茸 利用이 大衆化된 關係도 있으나 보다 더 큰 原因은 國產 生茸의 鹿茸化를 抑制하는 政府 政策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輸入하는 外產 鹿茸의 生産 課程은 輸出國 養鹿人이 기르는 사슴에서 生茸을 切取하여 自家 乾燥 또는 集團 乾燥한 후 畜產物로 流通하

는데 이를 마구잡이 輸入하는 우리나라는 鹿茸을 藥으로 規定하여 國內 養鹿人이 기르는 사슴에서 切取한 生茸의 乾燥, 販賣를 藥事法으로 불허하기 때문에 7만여키로(現在量)의 生鹿茸을 食品으로 消費하는 것을 外國과 같이 許容한다면 10年以內에 內需自給이 實現될 것이므로 政府는 關聯法令을 改正하고 國產 鹿茸 生産量을 감안한 需給計劃을 每年 樹立하여 內外產이 均衡供給이 實行되도록 鹿茸 關聯 政策 立案을 促求합니다.

(2) 流通 構造 改善

鹿茸은 輸入 乾鹿茸과 國產 生鹿茸이 있는데 輸入 鹿茸은 輸出國에서 乾燥한 乾鹿茸을 韓國 醫藥品 輸出入 協會의 鹿茸 輸入 추진을 받은 業者가 輸入하여 鑑別委員의 官能檢査로 通關한 다음 賣藥業商과 漢醫院에서 補藥劑로 消費者에게 販賣하고 國產은 사슴에서 切取한 生茸을 農場에서 實需要者에 販賣하는 現 流通 構造에서 發生하는 廢害와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담배, 人蔘과 같이 鹿茸需給 管理를 專擔하는 公共機構를 設置하여,

첫째, 鹿茸 輸入 窓口 單一化로 物量調節 및 密輸 防止, 理化學的 檢疫으로 不良品 流入을 豫防하고 中間 利潤排除한 廉價供給으로 消費者 保護와 公正 去來를 促進할 것이며, 둘째, 國產 生茸의 收買, 加工 流通等 國內 養鹿振興으로 漸進的인 內需 自給을 實現하도록 하며, 셋째, 鹿茸의 品質 및 가공 利用 研究等を 통해 國民 健康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國產 鹿茸 生産 實績 및 生産計劃과 外產 輸入 實績은 다음과 같습니다.

主要年度別 國產鹿茸(乾) 生産 實績 及 向後 生産 計劃表

國產鹿茸 生産 實績

單位：頭/kg

年度	飼育 및 生産 實績			品種別 사슴數와 鹿茸의 生産量					
	家口數	사슴總數	鹿茸生産量	꽃사슴數	生産量	赤鹿數	生産量	엘크數	生産量
1976	389	3,677	582	3,332	350	138	52	207	180
1980	918	10,144	1,579	9,250	971	358	141	538	467
1985	3,023	33,359	5,199	30,413	3,193	1,181	464	1,765	1,542
1990	5,669	89,346	14,982	79,647	8,369	3,889	1,531	5,810	5,082
1991	7,194	113,380	19,005	101,072	10,612	4,935	1,943	7,373	6,450
1992	8,308	143,881	24,118	128,261	13,467	6,236	2,466	9,357	8,185

向後 生産 計劃

(單位：頭/kg)

1993		182,585	30,365	162,763	17,096	7,948	3,128	11,874	10,387
1994		231,700	28,840	206,546	21,687	10,086	3,971	15,068	13,182
1975		194,028	49,291	262,107	27,521	12,800	5,040	19,121	16,730
2001		967,812	167,772	862,555	95,682	42,132	16,873	62,295	55,057

1. 사슴 增殖率 26.8%(年初 頭數×生産率(35%), 牝牡 比 各 50% 中 幼牝, 不妊 等 15% 除外

2. 鹿茸 生産量 : 꽃사슴 300g(8양), 赤鹿 1,125g(30양), 엘크 2,500g(66,6양)

外産鹿茸 輸入 實績

單位：kg / US \$

原產地	鹿 茸						鹿 角	
	89 年		90 年		91 年		90 年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中 國	14,644	6,382,477	18,208	6,222,264	14,497	7,283,791	119,030	33,030
뉴질랜드	28,077	10,894,925	22,164	6,929,990	48,415	17,975,814	1,910	1,400
美 國	1,135	443,100	300	104,000	2,850	1,373,240	253,410	76,910
알라스카	1,697	657,240	319	115,980	300	129,000		
카 나 다	390	165,400	1,367	461,530	2,305	1,082,350	14,030	6,000
소 련	2,675	1,164,000	1,545	577,680	14,193	6,288,297	175,780	48,400
서 독	515	314,555	525	199,550	387	206,740	11,600	20,000
호 주	196	247,555						
스 웨 덴							77,080	10,790
유 럽							45,000	
其 他							369,040	
計	49,454	20,054,739	44,428	14,610,944	82,974	34,339,232	1,066,880	269,080

4. 鹿茸의 加工 利用

飼育 鹿茸은 約 260余年間 補藥(湯材)으로 愛用 됐으나 醫學의 發達로 鹿茸利用이 多樣해지는 추세 입니다.

鹿茸 生産의 原產地인 中國은 湯劑 外에 丸劑, 膏劑를 生産하고 러시아는 液劑를 그리고 北韓은 湯劑 外에 丸劑, 注射劑 토니콤 등을 開發하여 加工 利用 하는데 世界 鹿茸의 80%를 消費하는 우리나라는 古典인 韓醫書 處方에 따른 補藥 湯劑로만 利用되고 있어 現代 醫藥으로 加工利用이 時急하다 하겠습니

다.

이와 關聯 數年前부터 國產 生茸을 첨단 的 醫藥 方法에 의한 乾燥와 世界 最初로 鹿茸 粉末를 開發 하여 優秀特許를 獲得하고 國家 機關에서 一般 醫藥 品으로 檢討와 基準까지 마련했으나 政府의 政策 不在로 實用化하지 못하고 있는데 政府는 小數 特權層 보다 多數 國民 保護 次元에서 보다 多樣하게 利用 되도록 法令을 補完하여 鹿茸 消費王國다운 施策樹 立을 建議합니다.

◆ 財務部 ◆

시슴 輸入 開放 對策

建議事項: 輸入 시슴과 輸入 鹿茸에 調整關稅適用을

시슴 輸入 開放으로 沒落危機에 直面한 國內 養鹿 의 保護와 國際競爭力 培養을 위하여 輸入 시슴과

鹿茸의 關稅率을 100% 上向 調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슴 輸入 現況

開放 1次 年度의 시슴 輸入 實績과 向後 輸入 計劃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輸 入 內 譯

單位: US. \$

品 種	頭 數	輸入先	輸入者	到着者	輸入價格(CIF)	備 考
엘 크	170	美 國	文明吉	6月 4日	643,200	
레드·엘크	902	濠 洲	金炳天	7月29日	716,631	
엘 크	145	美 國	朴基澤	9月30日	507,000	
레 드	862	濠 洲	郭永載	10月24日	633,570	
計	2,079				2,500,401	

國立動物檢疫所 提供

<표 2>

輸 入 計 劃

品 種	頭 數	輸入先	輸入者	到着豫定日	輸入價格	
레 드	200	濠 洲		92.12.10		
엘 크	340	카나다		93. 1. 9		
엘크와피티	910	뉴질랜드		93. 2. 9		
엘 크	300	美 國		93. 3. 9		
엘 크	300	美 國		93. 4. 9		
計	2,650					

國立動物檢疫所 提供

2. 國內 사슴의 開放 被害 狀況

슴 價格이 暴落을 거듭하여 既存 養鹿場은 平均

(1) 사슴 價格 暴落

1,800萬원의 莫大한 被害를 입었으며 全體 被害額은

91年 3月末 政府의 사슴 輸入開放發表로 國內 사

1,276億으로 推算합니다.

<표 3>

國內 사슴의 開放 被害

單位：頭 / 億원

品 種	子 鹿		育 成 鹿		成 鹿		合 計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꽃 사슴	20,000	(45) 103億	17,000	(57) 97億	79,000	(60) 474億	116,000	674億
레드디어	1,000	(210) 21億	900	(275) 26億	4,000	(280) 112億	5,900	159億
엘 크	1,600	(460) 73億	1,200	(480) 57億	6,000	(520) 312億	8,800	442億
計	22,600	197億	19,100	180億	89,000	898億	130,700	1,275億

<표 4>

開放前과 現價格 對比 表

單位：頭 / 萬원

사슴명	性 別	子 鹿			育 成 鹿			成 鹿			平 均 增減率
		開放前	現	增減	開放前	現	增減	開放前	現	增減	
		90年9月	92年9月		90年9月	92年9月		92年9月	92年9月		
꽃 사슴	암	75	29	-46	110	47	-63	125	58	-67	-54.7%
	수	75	31	-44	105	53	-52	135	85	-50	-48.6%
레드디어	암	290	75	-215	400	115	-285	475	180	-295	-69.4%
	수	290	80	-210	400	130	-270	475	210	-265	-65.3%
엘 크	암	740	280	-460	430	1,000	-570	1,150	480	-670	-59.1%
	수	775	300	-475	850	460	-390	1,100	730	-370	-55.2%

(2) 사슴 分讓 中斷

入이 되고 부터는 分讓이 全面 斷絶되어 飼料費 및

91年 3月末 開放 發表 직후부터 價格 下落이 繼續

管理費(人件, 診療) 마련을 못해 덤핑 販賣와 廢業

되는 가운데 小幅의 分讓은 되었으나 92年 사슴 輸

이 續出하는 가운데 轉業하려는 氣流가 擴散되고 있

습니다.

(3) 屠殺 盛行

牧場 經營이 어려운 1部 養鹿人은 收益性이 낮은 꽃사슴을 개소주 業者에 蒸湯材로 또는 鹿汁을 만들어 經營費로 充當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이렇게 殺畜된 사슴數는 5000-10,000頭에 이르고 있어 國產

鹿茸 自給을 威脅하고 있습니다.

3. 國內 사슴 價格安定

15萬키로의 鹿茸 內需量을 國產으로 代替하기 위해서는 國內 사슴을 適正價로 安定시켜 流通을 正當化해야 하므로 生産費와 所得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슴 價格이 維持되어야 합니다.

<표 5>

國內 사슴의 適正 價格

單位 : 頭 / 萬원

品 種	性 別	子 鹿		成 鹿		備 考
		基 準	價 格	所得(生産性)	價 格	
꽃 사 슴	암	成鹿價의	40	子鹿生産率 90%	80	優秀 鍾鹿은 例 外로 함.
	수	2分の 1	50	生鹿茸 1kg 外鹿血	100	
레 드 디 어	암	成鹿價의	100	子鹿生産率 85%	200	.
	수	2分の 1	125	生鹿茸 3kg 外鹿血	250	
엘 크	암	成鹿價의	400	子鹿生産率 85%	800	.
	수	2分の 1	500	生鹿茸 8kg 外鹿血	1,000	

4. 國內 사슴과 輸入 사슴 價格 對比

國內 사슴은 開放前에 비해 平均 59% 暴落했으나 輸入 사슴 價格보다 높기 때문에 輸入을 抑制하기

어려우며 輸入이 繼續하는 限 國內 사슴 分讓은 杜絶될 것이므로 다음 表에서 算出된 差額을 關稅로 吸收해야 價格安定과 流通이 正當化될 수 있습니다.

<표 6>

國內 사슴과 輸入 사슴의 價格

單位 : 頭 / 萬원

品 種	國內사슴	輸入 사슴 (CIF)	價 格 對 比		備 考
			差 額	比 率	
꽃 사 슴	60	實績 없음	-	-	
레 드 디 어	130	61.2 (765 \$)	68.8	112%	
엘 크	550	291.0(3637 \$)	259.0	89%	
평 균				100.5%	

註 : 1. 國內 사슴은 1992.10 現在 育成鹿(前年度)의 平均 價格임.

2. 輸入 사슴은 今年度 輸入한 育成鹿 및 1部 成鹿의 平均 價格임.

3. 輸入 사슴은 育成鹿과 成鹿이 混合됐기 때문에 年齡別 實價格은 더 낮으며 또한 成鹿數의 差額으로 國內 發生經費가 充當될 것임.

5. 鹿茸 輸入이 國內 養鹿에 미치는 影響

國產 生茸의 鹿茸流通을 不法으로 規定했기 때문에 韓國 醫藥品 輸出入 協會로 부터 鹿茸 輸入 추천을 받은 業者는 國產 鹿茸의 3分の 1價에 不過한 世界 各國의 低質 鹿茸을 無分別 輸入하고 있어 危機에 處한 國內 養鹿은 失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世界 主要 養鹿國은 內需가 없어 鹿茸을 韓國으로 輸出해서 附加價値를 높이고 있음에 따라 最近 러시

아는 버려지던 馴鹿鬚을 大量(年產 10만키로 推定) 輸出을 企圖한다고 하는데 現在와 같이 無制限 輸入 추천과 價格差를 放馳한다면 國內 養鹿은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輸入 鹿茸에 대한 現行 關稅 25%를 100% 引上하여 國內 養鹿을 保護해 주기 바랍니다. <表 7, 8, 9參照>

<표 7>

鹿茸 需給 現況

單位 : kg./ 圓

年度	需 給 現 況				Kg當 價 格		
	年間供給量	國產鹿茸	輸入鹿茸	其他	國產鹿茸	輸入鹿茸	其他
1989	61,255	11,801	49,454		1,197,000	316,300	
1990	59,410	14,982	44,428		1,064,000	256,500	
1991	101,979	19,005	82,974		1,064,000	322,600	
1992		24,118	62,672	6月末現在	1,000,000		

註. 國產은 農場 販賣 (消費者) 價格이며, 輸入 鹿茸은 輸入價 (환율 780:1) 임.

<表 8>

鹿茸 流通 段階別 價格

單位 : 圓

產地區分		產地價	輸入價	都賣價	消費者價	備 考
國產	Kg當	1,000,000	-	-	1000000	生茸을 乾茸으로 換算함.
	兩當	40,000	-	-	40000	
外產	Kg當	300,000	453,200	800,000	2000000~2660000	92. 7 뉴질랜드產 (換率 790:1)
	兩當	10,800	17,037	30,000	80000~100000	

註 : 輸入 鹿茸의 產地價는 輸入價(CIF) 輸入價=產地價+各種稅金. 都賣價=輸入價+輸入者 利潤

<表 9>

國產鹿茸과 輸入鹿茸의 價格對比 및 關稅

單位 : kg/ 원

品名	價格(兩當)		差額	關稅		備考
	國產(農場價)	外產(CIF)		現行	調整	
鹿茸	40,000	10,800	29,200	25%	100%	

◆ 財務部 ◆

不公正 課稅 是正

國內 養鹿所得에 賦課하는 所得稅와 鹿茸(滋養強壯品)에 賦課하는 特別 消費稅에 對하여 不公正, 不均衡 是正을 數年동안 建議했으나 政府 當局은 사슴을 奢侈性 動物 또는 農民 飼育이 아니라는 등으로 默殺했지만 사슴은 奢侈 動物아닌 家畜이고 飼育 家口中 86%가 零細農民이 副業으로 飼育하고 있는 畜產業입니다.

1. 所得稅: 農家 副業 所得(第5條)中 大統領令(施行令別表3)이 定하는 農家 副業의 畜産의 範圍는 非課稅하는데 같은 家畜임에도 副業 養鹿 規模의 사슴은 除外했으며,

2. 特別 消費稅: 人蔘, 鹿茸, 로얄제리, 해구신은 같은 滋養強壯品임에도 人蔘은 人蔘加工 製品에만 適用하고 非加工 로얄제리는 非課稅하는데 國內產 滋養強壯品 中 鹿茸(非加工)만 課稅對象으로 規定했습니다.

뿐만아니라, 鹿茸은 乾茸(輸入品)고 生茸(國產)이 있으며 乾茸은 鹿茸(藥)으로 流通하지만 生茸은 鹿茸(藥) 아닌 畜産物(食品)로 流通하는 實情이므로 마땅히 非課稅해야 하는데 오히려 輸入 鹿茸보다

1~1.5배 높게 課稅를 하고 있습니다. 例를 들면 輸入 鹿茸은 (輸入價+關稅+教育稅) 兩當 15,000원을 課稅額로 할 때 稅金은 1,500원이고 國產(乾茸換算)은 農場販賣價(消費者價) 兩當 35,000~40,000원을 課稅로 하기 때문에 3,500~4,000원이 特別 消費稅입니다.

따라서 國產은 輸入 鹿茸 때문에 鹿茸 아닌 食品으로 판매하는데도 稅金은 몇 배로 負擔하는 것은 不公正, 不均衡이 많을 수 없으며 鹿茸 아닌 사슴뿔(畜産物)에 鹿茸에 關한 稅金을 賦課해온 것은 마땅히 還元해야할 것이나 沒落危機에 直面한 養鹿業 保護와 鹿茸의 內需 自給 現實을 위해 副業規模 畜産 範圍에 該當하는 사슴數는 所得稅를 非課稅하고 畜産物인 國產 鹿茸은 特別消費稅를 免稅할 것을 強力히 建議합니다.

但, 外產 輸入鹿茸은 完製된 鹿茸이므로 特別 消費稅 賦課 對象임이 됩니다.

建 議 事 項

1. 所得稅法 施行令別表 3 農家 副業의인 畜産의 範圍에 사슴을 免稅에 追加

現 行				改 正 案	
가 측 명	규 모	가 측 명	규 모	가 측 명	규 모
젓 소	20마리	오 리	10,000마리	꽃 사슴 적 록 열 코	80마리 40마리 15마리
소	30마리	닭	10,000마리		
돼 지	200마리				
산 양	300마리				
면 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사슴頭數는 소價格基準換算數임

2. 特別 消費稅法 施行令 別表 1 課稅 物品에서 國産 鹿茸은 로알제리와 같이 改正

現 行	改 正 案
<p>6. 자양강장품</p> <p>가. 인삼, 녹용, 로알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고형, 연상, 분말, 액체 기타)</p> <p>나.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인삼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인삼드링크류, 인삼넥타류, 인삼토닉류와 경육고류에 한한다)으로서 전매청장이 허가한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제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p> <p>다. 녹용, 로알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해구신</p>	<p>다. 녹용 및 로알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해구신</p>

鹿茸의 源泉의 根源을 照明해본다(上)

이 정 록

1

사슴은 뿔을 달고 있는 타 동물과 비교해보면 상이한점 몇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소와 염소는 암컷과 수컷이 똑같이 뿔이 돋아 나지만 사슴은 수놈만 뿔이 돋아 난다. 소와 염소는 한번 돋아난 뿔을 평생도록 달고 다니지만 사슴은 봄이되면 목은 뿔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뿔로 교환을 한다. 소와 염소의 뿔은 돌아날때부터 각질화되어 딱딱하지만, 사슴은 돌아날때는 말랑 말랑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도 조직이 연하다가 뿔이 다 자라가면 밑에서부터 차츰 굳어져 완전히 굳으면 어느 뿔보다 단단해진다.

사슴뿔이 굳기전의 어린 뿔을 채취한것을 茸이라고 하여 古來의부터 우리민족이 보약으로 애용해왔다. 茸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하여 보약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의 경험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용되어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정시대 특정인에 의해서 개발 된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슴은 우리나라에만 자생되어 온것은 아니다. 알다싶이 세계 곳곳에서 자생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양권에서만 녹용을 보약으로 사용하여 왔고 서구쪽에서는 버려지고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동양사람에게는 녹용이 몸에 맞고 서양사람 체질에는 녹용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게 추측으로 해 오는것이 지금까지 녹용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인이라고 모두 맵고 짜게 먹는것도 아니고, 서양인이라고 모두 육식을 많이 먹는것은 아닐진대 맵고 짜게 먹는 민족에게는 녹용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 한다거나,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약효

를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발설은, 동양인과 서양인이라는 점을 미리 의식한것이 분명하다. 이런 유사한 풍문들이 밑도 끝도없이 떠돌고 있지만 이는 동양인은 녹용을 복용함이 마땅하고, 서양인은 녹용을 복용하지 않는것이 당연지사의 무슨 절대 불변의 철칙인양 내세워, 그 고정된 관념을 이미 확고히 규정지어 놓고는, 그 고정관념을 두둔하기 위한 굳더더기에 불과하다.

이는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은 모두 파란색으로 부터 시작 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색상 구별에 혼돈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녹용의 약재로서의 사용 동기를 고찰하는 마당에서 고정된 관념을 밑바닥에 깔고 고찰하면 올바른 고찰이 될 수 없음도 당연하다. 안경을 벗어 버리듯 고정 관념을 떨쳐 버리고 녹용의 사용 동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찰해 보 고져 한다.

녹용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은 허준 선생께서 저술한 동의보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의 개인적인 관찰이라 경험에 의했다기 보다는 그때까지 전해 내려오던 모든 의학술을 탁월한 전문가의 안목으로 정립 했다고 할 수 있다. 특정인이 단시일에 이루었다면 아무리 빼어난 명이라 하더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는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방 보약중 최고봉으로 꼽는 녹용을 서양에서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녹용은 식품이 아닌 약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

므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에서 자생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은 약효 성분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을 다루어 나가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학은 신체의 어떤 부위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 자체를 다스려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데 주력을 한다면, 동양의학은 신체의 어떤 부위가 허약하여 질병으로 부터 침해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그 부위를 보강 하여 건강 상태를 유지 하는데 근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나라의 국방력과 비유 한다면, 서양의학은 적군이 국경을 넘어 국내에 침입 했을 때 적군을 섬멸하는 것이라면, 동양의학은 국방을 튼튼히 하여 적군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내에 잠입 했더라도 발 붙일 여유를 없애버려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은 적군을 살상 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 하는데 주력을 했다면, 동양의학은 성곽을 구축하고 군대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보약이란 동양의학 중에서도 한발 앞선, 국력을 탄탄히 하여 적군이 이에 넘보지 못하도록 막강한 나라를 이룩하는데 공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본다면 녹용은 체내에 침입하여 질병을 이끄는 병원균을 직접 죽이는데는 별다른 효능이 없으니 서양의학에서 도외시 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상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서 오는 차이점으로 녹용 사용 필연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남쪽에 심으면 굴이 달리고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달린다는 말은 유명하다. 동일한 식물이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도 상이한 종류처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암시한 말이다.

청도의 반시는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외형에서부터 맛과 색깔과 향기에서 다른 어떤 유사한 반시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 반시를 멀지않은 이웃지방에 옮겨 재배를 했는데 외형에서부터 약간의 차이를 보이더니 맛과 향기는 판판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이웃 지방이래야 100km 안쪽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연의 신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식물 보다는 동물쪽이 환경 적용 범위가 더 넓게 작용을 하겠지만 동물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카나리아는 목소리가 몹시 고운 새이다. 카나리아의 울음 소리에 반한 영국 대사관 직원이 귀국하면서 본국에 예쁜 목소리의 카나리아를 보급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길러진 카나리아 100쌍을 가져 갔으나 시패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에서 가져간 카나리아는 목소리가 은방울을 굴리듯 고운데 영국에서 번식한 카나리아는 목소리가 영 판판이드라는 것이다. 카나리아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역시 한국의 기후풍토가 창출해낸 최고의 걸작품인 셈이다.

그냥 막연히 동양권에서는 녹용을 사용해 왔으니 체질에 맞는가보다 또는 서양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니 체질에 맞지 않나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호법농원의 백인범시계서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에 의뢰하여 녹용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연구 발표가 수년전에 있었지만 여기서 효능 실험을 한 동물은 쥐와 토기였다. 쥐와 토기에서도 효능이 확인 되었는데 서양인이라고 하여 쥐와 토끼 보다도 더 동양인과 체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양에서 녹용을 약품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통찰해 보건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 또는 체질면에서 오는 차이도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하는것은 서양에서 자생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은 약효 성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결론을 내려본다. ☆